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는 창직의 세계

창직은 자신의 취미나 즐거움, 재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그렇기에 창직에 대한 고민은 진로 탐색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과정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직업을 상상하고 구체화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강해져요.

호기심 가득 탐험대장이 힐링 여행을 만나면 무인도 힐링 투어 개발자

미지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이 많던 저는 **탐험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막을 찾아가 마라톤을 하고 해외의 무인도를 찾아가기도 했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내에만 약 3천 5백여 개의 섬이 있고 그중 3천여 개는 무인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힐링’이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무인도 투어와 접목했지요. 그렇게 **무인도 탐험 콘텐츠를 만들고 여행, 식생 탐방, 생태환경교육 조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예술로 위로하는 예술 치유 콘텐츠 개발자



예술과 공연 기획을 좋아했던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이 더 나은 곳에 사용되길 원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며 우울증이 찾아왔던 저처럼 많은 사람이 정서적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글로 나타내는 것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지요. 이제 저는 **사람마다 가진 이야기로 공연을 만들고 책을 쓰며 치유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트렌드의 만남으로
우리 아이만의 직업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